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부채상한선 해결되자 하원 공화당, 감세 추진
- WSJ: 서부 주들 기술 붐 탔는데 이제는 고실업률과 임금 하락 직면

#### [미국 금융]

- WSJ: 올해 주식 상승세... 일부 대형주에만 의존
- WSJ: SEC, 코인베이스 제소..."미등록 브로커 딜러"

#### [서부 항만]

- CNBC: 미 서부 항만 문제 LA에서 Seattle까지 여파... 공급망 불만 증가

#### [미 고용]

- TIME지: 사무실 복귀율 감소, 하이브리드 근무 증가
- TIME지: 미국인들은 왜 다시 파트타임을 원할까?

#### [반도체]

- Bloomberg: 일본 새로운 칩 생산 계획... 1천80억줄 매출 목표 확정

#### [글로벌 경제]

- Bloomberg: ECB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 크게 떨어졌다"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소비자들 식료품 덜 사지만 돈은 더 지출
- WSJ: 해커, ChatGPT 사용하여 피싱 공격 강화한다
- CNBC: GM, 새로운 대형 픽업 생산에 10억 불 이상 투자

####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23.6월)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WSJ: With Debt-Ceiling Deal Done, House GOP Looks to Cut Taxes** 부채상한선 해결되자 하원 공화당, 감세 추진

- 하원 공화당은 부채 한도 법안 타격 직전까지 연방정부의 지출 축소와 적자 감소를 주장했는데 현재는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만료된 비즈니스 세금 감면 혜택을 되살리고 그리고 개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빠르면 이달에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올해 초당적인 협상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시대의 개인 감면 혜택이 끝나는 오는 2025년에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패키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법안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예산적자에 대한 법안의 여파를 제한하기 위해 청정 에너지 세금 공제 폐지와 같은 세수 증대 조항을 포함시킬수도 있다는 것이다.

## WSJ 기사

**WSJ: West Coast States Rode the Tech Boom. Now They Face Higher Unemployment, Falling Wages.****서부 주들 기술 붐 탔는데 이제는 고실업률과 임금 하락 직면**

- 현재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은 미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주중에 하나이다.
- 이들 지역의 기술 경기 침체는 지역 경제가 냉기를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산업분야의 근로자와 기업체 타격을 주고 있다.
-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의 청소부와 교사, 식당과 세탁소는 작년 중반부터 수만 명의 기술직 해고 현상과 더불어 각종 비용 절감 조치로 인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률 증가, 임금 하락, 주정부 예산 축소, 일자리 증가율 둔화 등이 나타나고 있다.

## WSJ 기사

**[미국 금융]****WSJ: This Rally Is All About a Few Star Stocks—And Some Investors Are Worried****올해 주식 상승세... 일부 대형주에만 의존**

- S&P 500 지수는 올해 11% 상승했으며 10월 저점 대비 거의 20% 상승한 후 새로운 강세장에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하다. 유럽의 대부분의 주요 지수는 2023년에 10% 이상 상승했으며, 프랑스의 CAC 4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 놀라운 상황은 이런 지수들은 미국의 은행 위기와 부채 상한선 교착 상태,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를 딛고 상승했다.
-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며 랠리에 참여하는 종목수가 좁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P 500 지수 수준만 보면 회복모드에 들어간 것 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표면아래 상황을 잘못 반영한 것이라고 Principal 자산 관리사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Seema Shah는 진단했다.

## WSJ 기사

**WSJ: SEC Sues Coinbase, Alleges It Is Unregistered Broker-Dealer**  
**SEC, 코인베이스 제소... "미등록 브로커 딜러"**

-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오늘 미 최대 가상화폐 플랫폼인 Coinbase가 1) 거래소로서 등록해야 하고 2) 연방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 이번 사건은 이번 주 월요일 Binance와 창립자인 Changpeng Zhao 에 대한 규제 당국의 집행 조치에 이어 이틀만에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두번째 조치이다.
- 구체적으로 코인베이스가 증권에 해당하며 발행전에 규제 기관에 등록했어야 하는 최소 13개 암호화폐를 거래했다고 SEC는 주장했다. 등록시에는 보통 투자자들에게 재무 제표와 규제 기관이 검토하는 상세한 리스크 공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WSJ 기사

### [서부 항만]

#### **CNBC: West Coast port labor issues persist from Los Angeles to Seattle, with supply chain frustration mounting**

#### **미 서부항만 문제 LA에서 Seattle까지 여파... 공급망 불만 증가**

- 이번주 월요일 미 서해안 항구가 재개장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LA에서 Seattle까지 이르는 항구 내 터미널에서 하역 속도 저하와 교대 근무 종료 등의문제가 발생 했다.
- 터미널 운영업체 Fenix Marine Services가 월요일 첫 교대 근무 때 트럭 운전사들을 돌려 보냈다. 그들은 해상 운송업체로부터 컨테이너를 픽업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는 Maersk, OOCL, COSCO Shipping, Sealand, Evergreen의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다.
- 오늘 오전 CNBC에 따르면 Fenix Marine에서 일부 수입이 취소 되었다. 또한 Pacific Container Terminal은 월요일 아침 트럭 운전사들에게 화요일 주간 근무를 중단 시켰다. 이 터미널은 이미 일주일 전에 근무를 중단 시킨 바 있다.

CNBC 기사

### [고용]

#### **Time지: Return-to-Office Full Time Is Losing. Hybrid Work Is On the Rise** **사무실 복귀율 감소, 하이브리드 근무 증가**

- 1억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4천 개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The Flex Report에 따르면 2023년 2분기에 사무실 풀타임 근로자의 비율이 1분기 49%에서 42%로 감소했다.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채택한 기업의 비율은 2023년 2분기에 30%를 기록했다. 1분기에는 20%였다.
- 근무 환경이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는 ‘구조화된 하이브리드’로 변하고 있다. 평균 출근 일수는 2.53일로 금요일에 출근하는 사무실은 거의 없다. 월요일에 출근하는 사무실은 24%에 불과하다. 회사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무실 근무 요일은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이다.

- 원격 근무를 연구하는 Stanford 대학 Nicholas Bloom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재택 근무 비율은 약 30%로 팬데믹 이전보다 약 5배 안정화되고 있다. 또한 재택 근무를 하는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생산성이 더 높고 그 만들 확률이 3분의 1 낮다.
- 유연근무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에 따라 업무의 유연성이 크게 달라진다. 직원 수가 5백 명 미만인 기업은 3곳 중 2곳 꼴로 완전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 수가 5만 명 이상인 기업은 13%가 완전 유연 근무제, 66%가 구조화된 하이브리드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 미국 서부 및 북동부 지역에서는 Oregon, Washington, Colorado 주가 완전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Arkansas, Alabama, Louisiana 주가 사무실에서 풀타임 근무를 하는 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 TIME 기사

### Time지: Why Americans Want Part-Time Jobs Again 미국인들은 왜 다시 파트타임을 원할까?

- 최근 고용시장에서 근로자들이 파워가 있다. 더우기 미국인들은 고용시장에서 더 유연한 일을 확보하기 위해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근무가 늘고 있다.
- 6월 2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비경제적인 이유, 즉 자의에 의해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답변한 미국인 수는 5월에 2천1백80만명에 달했다. 이는 1년 전보다 5%, 10년전보다 15% 증가한 수치다.
- 반면 경제적인 이유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3백70만명으로 지난 1년동안 줄었다. 일을 원하는 사람들중에 자발적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6대 1로 20년간 최고치에 달했다.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이 더욱 유연한 스케줄로 일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파트타임 근로자 증가는 아직 일부 일을 하지만 대부분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일부 주도하고 있다. 또한 파트타임 일자리 증가는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녀나 노부모를 돌보는 일을 맡았고, 그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주 40시간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을 피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2021년 미국인들은 하루에 집에서 자녀와 성인을 돌보는데 소비하는 시간이 2019년에 비해 각각 9%와 14% 늘었다.
- 미국인 숫자보다 현재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독립적이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미국인들 입장에 여유를 준다. 그리고 패데믹 때 해고된 사람들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 Fiverr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미국내 독립적인(자영 근무) 프로페셔널 (ndependent professionals)은 2021년부터 2.2% 늘어난 6백70만명이다. 이들은 많은 비율이(73%) 일과 삶의 균형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 TIME 기사

## [반도체]

**Bloomberg: Japan Renews Chip Plan, Confirms Sales Goal of \$108 Billion****일본 새로운 칩 생산 계획... 1천80억달러 매출 목표 확정**

- 일본 정부는 칩을 경제 안보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오는 2030년까지 국산 반도체 매출을 15조엔(1천80억달러) 이상으로 3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이른바 칩 전략을 개편했다.
- 경제부처에 따르면 오늘 화요일 발표된 수정 전략에 따르면 경제 안보 조치에 필수적인 최첨단 반도체 개발 및 생산 노력과 생성형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일본 내에서 칩을 만드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 한편 일본 남부지역의 TSMC와 Kioxia는 4조2천억엔 규모의 GDP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관련 프로젝트들로 46만3천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 Bloomberg 기사

## [글로벌 경제]

**Bloomberg: ECB Says Consumer Inflation Expectations Fell Significantly**  
**ECB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크게 떨어졌다”**

-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가 4월에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 ECB는 화요일 설문조사에서 향후 1년 기대치가 3월 5%에서 4.1%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향후 3년 전망은 2.9%에서 2.5%로 하락하여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
- 인플레이션은 5월에 6.1%로 둔화되었다. 변동성 요소를 제거하면 5.3%이다. 이는 예상치보다 약화된 것이다. 유럽위원회가 실시한 내년도 인플레이션 기대치 조사에서는 2020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 Business: People are spending more on groceries. But they're buying less****소비자들 식료품 덜 사지만 돈은 더 지출**

- Kellogg, PepsiCo, Nestlé와 같은 식품 제조업체들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구매 횟수는 줄어들고 있다.
- “매출 총액을 보면 긍정적인 상황은 맞지만, 이는 가격 인상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 라고 시장 조사 기관 Circana의 전략 및 컨설팅 업무 담당인 Alastair Steel이 말했다.
- Circana에 따르면 올해 전년 대비 판매량은 달걀 4.7%, 우유 3.9%, 빵 3.8%, 채소 3.5% 감소했다.
- 가격은 달걀 48.2%, 우유 5%, 빵 12.7%, 채소 14.7% 올랐다. 상대적으로 매출은 달걀 41.2%, 우유 0.9%, 빵 8.5%, 채소 10.7% 올랐다.

CNN Business 기사

### WSJ: How Hackers Can Up Their Game by Using ChatGPT 해커, ChatGPT 사용하여 피싱 공격 강화한다

- ChatGPT와 같은 AI 챗봇은 피싱 등의 온라인 사기 도구의 사용과 효과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
- 클라우드 보안 제공업체인 Zscaler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피싱 공격은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 이는 피싱 메시지를 실제인 것처럼 만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때문이다.
- 대규모 언어 모델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의 의사소통을 모방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해커들이 피해자를 속이거나 악성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 피싱 공격의 일반적인 징후는 문법과 철자 오류이다. 하지만 AI는 유창하고 문법적으로 알맞은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다. 게다가 개인의 작성 스타일을 모방할 수 있어 피싱 공격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WSJ 기사

### CNBC: GM to invest more than \$1 billion to produce new heavy-duty pickups

#### GM, 새로운 대형 픽업 생산에 10억 불 이상 투자

- General Motors는 Michigan 주에 있는 두 공장에 10억 불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이번주 월요일에 밝혔다. 이는 차세대 대형 트럭 생산을 위한 것이다.
- 이는 Flint Assembly 공장에 7억 8천 8백만 불, Flint Metal Center에 2억 3천 3백만 불 투자될 예정이다. Flint Assembly 공장은 대형 가스와 디젤 트럭, Flint Metal Center는 차량을 생산할 예정이다.
- GM 대변인은 투자와 관련된 건설이 올해 4분기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년 GM은 대형 픽업 판매량이 전년 대비 38% 증가하여 약 28만

8천 대의 트럭을 판매했다.

CNBC 기사

[보고서]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23.6월)

BOKNY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미국 금융당국, 대형은행 자본 요건 20% 상향 검토"

WSJ "이르면 이달 안에 규제 강화 방안 추진"

미국 금융당국이 올해 초 은행권 위기 이후 은행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의 자본 요건을 약 20%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이 이르면 이달 이런 새 변경 사항을 금융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상향 비율은 은행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메가뱅크(초대형 은행)가 가장 많이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